

여수·순천

삶의 생명력으로
질편한 입담으로 풀어낸

한창훈 장편소설 《홍합》의 배경 여수·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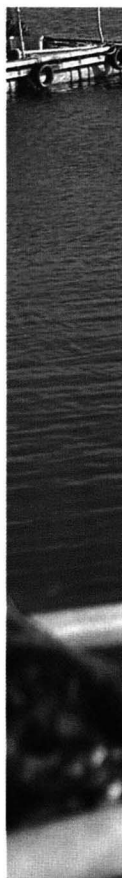
몸으로 벌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밑바닥 삶은 고달프다. 하지만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해학과 인내로 이겨나가는 건강한 이야기가 인상 깊은 소설이 한창훈의 장편 《홍합》이다. 한창훈의 소설에는 유난히 바다가 자주 등장한다. 바다가 건강한 생명력을 표상하듯이 그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건강하다. 장편소설 《홍합》은 홍합공장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벌이는 질박한 삶이 생선처럼 펴떡거린다. 실제 작가의 체험에서 비롯되듯 이 소설은 살아숨쉬는 듯하다.

작품의 주무대는 전남 신풍과 여수, 두 패의 아낙네들이 모여 질편한 입담을 늘어놓는 여수 외곽의 신풍리 소재 '홍합 냉동공장'이다. 순천역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여수 쪽으로 가다보면 여수공항 가기 전, 신풍리가 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른 만큼 홍합 냉동공장이었던 자리는 이제 가구공장으로 모습을 바꿨다. 외형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온갖 간판에 싸여 원래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

근방에 서너 개 되던 홍합공장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하나둘 사라졌다. 을씨년스럽게나마 남아 있는 것은 도축장이었다. 한낮이었지만 인적은 없었다. 지금은 고철을 모아놓는 곳으로만 사용되는 듯 공장을 지키던 개들만 요란하게 짖어댔다.

공장에서 5백여 미터 거리에 있는 여수공항은 작품 속에서 공장과 대비되는 상징적 장소로 묘사된다. 현재 확장공사중이어서 공항은 더욱 거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않았을 마을사람들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소음의 진원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장 안의 삶과 지난한 세상 속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는 공장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묘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공장에서는 날고 기는 이들이지만 이렇듯 버스에 올라타면 궁색스럽고 가년스런 물결이 그대로 살아났다. 별다를 것 없던 퍼머머리는 값싼 태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던 잔주름마저 남김없이 도드라져 땀으로 번진 입술연지와 어울려 꼬여 있는 인생을 배반 없이 나타냈다. -《홍합》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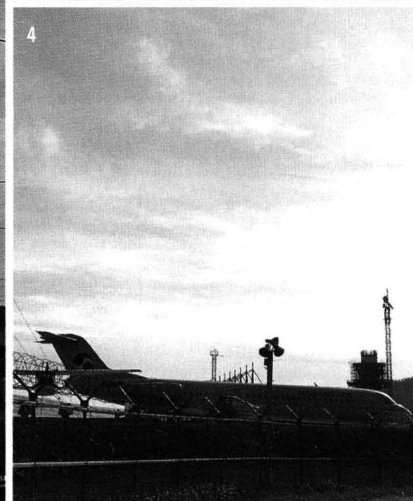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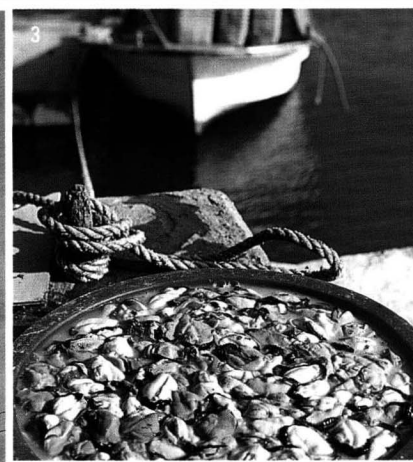


1_ 바지선에서 작업한 홍합들을 육지로 옮기는 모습.

2_ 유일하게 원형대로 남아 있는 도축장 전경.

3_ 탈각된 홍합 너머로 보이는 항구.

4_ 여수 공항.





《홍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수한 입담이다. 홍합탈각 작업을 하기 위해 모여 앉은 여자들이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실화(?)에 근거해서인지 생생히 살아 있다. 힘든 삶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입담이었던 것은 아닐까.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은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항호리엔 아직도 홍합채취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이 살고 있다. 홍합을 채취하고 작업하는 곳이 바로 '소호현장'이다. 여수 쪽으로 해안선을 끼고 좀더 차를 몰다보니 멀리 홍합양식을 위해 바다 위에 떠있는 동그란 부표들이 보였다. 날씨가 추워서 천막을 치고 들어앉은 아주머니들이 홍합탈각 작업에 한창이었다.

홍합가기의 고참이었던 '국동패'와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던 '신풍패' 아낙네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주머니들을 유심히 보았다. 홍합 까는 아낙네들은 주로 5,60대. 작품 속에서처럼 '새살까는' 모습이 질펀하진 않았지만 구수한 전라도 입담은 살아 있었다.

《홍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작품 전편을 통해 나타나는 여자들의 질박한 삶이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아내로서 대접받지 못하지만 가족의 생계 역시 책임져야 하는 아낙네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삶의 고단함을 그만큼 고단한 노동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누구든 막상 작업을 시작하면 집안에 있던 사사로운 것은 금방 잊게 되고 그제 되려 일에 전념하게 만들었다.

다. 친구들과 농담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일 처리하고 시빗거리가 붙으면 야무지게 대응

하며 하루 날이 저물면 삼하고 끄였던 속은 흔적도 없이 풀린다. -《홍합》중에서



작업장 옆에는 묶어진 홍합들을 나르는 원통형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었다. 양식장 근처의 바지선에서 작업한 홍합들을 차로 싣기 위한 작업이었다. 홍합냉동차 운전기사였던 문 기사가 이 근처에 아마도 차를 대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을 법한 풍경이었다. 지금은 세태가 변해 가까운 양식장들이 많이 사라지고, 먼 바다로 밀려났다. 요트장이 들어선 까닭이다. 밀려난 건 양식장만이 아니다. 홍합을 매개로 그 안에서 살아 숨쉬던 사람들도 밀려났다. 모두들 어디로 갔을까. 근처 공단의 노동자로, 농사꾼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홍합 냉동공장' 사람들이 삶에 절망하고 낙담한 채로 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작가가 바라보는 삶이 낙관과 희망에 더 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창훈**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아무튼 좋다. 오고가는 것이야 어차피 사람의 소관이 아니다. 어떤 것이든 좋다. 견뎌주마, 다가오라(…)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서 있는 자리에서 가능할 것이었다. 돌아볼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었다. 언제나

눈앞에 있었다. -《홍합》중에서

한창훈 지음 / 한겨레신문사 / 292쪽 / 값 7,000



《홍합》은?

《홍합》은 제3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이다. 여수 근처의 '홍합 냉동공장'을 배경으로 공장사람들의(주로 여자들) 토속적 해학성이 묻어나는 소설이다. 제목인 '홍합'은 여성의 원초에 가까운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 실제 냉동차 기사로 일한 작가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어 현실감이 넘친다. 남편이 없거나 남편에게 얻어맞으면서도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연 많은 아낙네들, 승희네, 강미네, 중령네, 금이네 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위 먹물로 보이는 문 기사와 승희네와의 결합 가능성이 작품의 정점을 이룬다. 젖이 남아돌아 강아지한테도 먹였다는 젊은 과부 승희네, 행패를 부리는 선원에게 지지 않고 악다구니를 쓰는 반장 강미네, 술집에서 시아버지를 만나자 대신 술값을 내줄 것을 태연히 요구하는 중령네 등 독특한 아줌마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각 장마다 펼쳐진다.

작가 한창훈은?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뗏〉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다. 우리 문학에 잃어버린 민중적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작가다. 담백하고 순수하다는 세간의 인물평과 걸맞게 우직한 전통적 작법을 보이고 있다. 학생시절 막노동과 뱃일 등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것이 이색 경력.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써내는 그의 소설은 그래서 더욱 살아 있다. 채만식, 이문구의 문체를 닮은 능청스럽고 걸쭉한 입담의 소유자로 우리 문단의 새로운 계보를 잇고 있다는 평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가던 새 본다》, 《홍합》, 《바다도 가끔은 섬의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이 있다.